

[주목! 억울한 판결에 맞서 싸우는 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중학입니다.

저는 여러 사건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제가 겪은 억울한 일화를 공개하므로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주시 사건

저는 2008년경 총주시에 약 9,000평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으나, 위법으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주시의 형사고발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민원서류반려알림처분무효 소송에서, 반려의 원인이 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은 성립되지 않는 규정인데도, 법원은 성립 여부를 고의로 판단하지 않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재누50001로 다투고 있습니다.

- 재건축 사건

2003년의 재건축에 대하여 저는 아직도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조합장이 제 입장을 위조했으나, 검사는 조합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건의 지에스건설의 부당한 건물 인도와 경매 진행 및 승인 무효 등의 사건에서, 조합장이 증거를 위조하였고, 제가 위조를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조증거를 토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사위 판결임이 밝혀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68로 다투고 있습니다.

- 판사와의 손해배상 사건

고의로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 3명에게 18원(18XX의 쌍욕)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저작권 사건

총주시 사건과 재건축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 재판에 이기려고, 법관이 보는 ‘재판실무편람’과 법원직원이 보는 ‘법원실무제요’를 접하였습니다. 이 책은 재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편집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받고 인터넷에 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이 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판결에서 누락시키고 심지어 9회의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하고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고합9로 다투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

저는 3번째 고소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번째의 고소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심지어 법관은 선고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의심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으로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재고합1로 다투고 있습니다.

- 무고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고소하므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지만,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자 저는 (역)무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제3자가 협조하여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법원에서 목격자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언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하였습니다. 출소 후 ‘예금거래내역서’로 입금이 없는 점을 증명하여, 허위로 판결한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성남지원 2024재고단1로 다투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당하게 판결한 판사 3명에게 18원(18XX의 쌍욕)의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입보여 징역 2년 2개월을 살게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보호법 등 피해자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억울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위하여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진실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의 도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5324-3467, 이메일: cgiso@naver.com,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2-565-262464, 김중학)